

헨켈, 혁신 아이디어 경연대회 개최

글로벌 생활·산업용품 생산기업인 헨켈(Henkel)이 한국에서 <헨켈 이노베이션 챌린지>를 개최했다.

헨켈은 창립 136주년을 맞아 전 세계 학생들이 참여해 획기적인 사업 아이디어로 경연을 펼치는 <헨켈 이노베이션 챌린지(Henkel Innovation Challenge) 한국 본선>을 2월22일 성료했다고 발표했다.



<헨켈 이노베이션 챌린지>는 유럽, 북미 및 아태지역 23개국 학생들이 2인 1조로 팀을 이루어 2030년의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하고 헨켈의 제품이나 기술에 적용 가능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대회로 참여한 39개 팀 중 심사를 통해 12팀이 본선에 참가했다.

우승은 카이스트(KAIST)에 재학 중인 <KIASTSEA> 팀으로, 접착제 포물레이션 기술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헨켈 임원진으로부터 뛰어난 평가를 받으며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팀인 <KIASTSEA>는 2011년 최종 우승팀이 배출된 폴란드에서 4월에 개최될 결선에 한국 대표팀으로 참가해 세계 각 국가별 1등팀과 경쟁하게 되며, 결선대회 최종 우승팀에게는 세계일주 티켓과 1000유로에 상당하는 여행 경비가 수여될 예정이다.

헨켈의 파루크 아리그 사장은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보여준 열정과 도전정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헨켈 이노베이션 챌린지 대회가 한국 인재들의 창의성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2/02/23>